

## 아르누보 이미지의 드레스 디자인 연구

- 장식 디테일 사례를 중심으로 -

이정원\* · 조규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Dress Design Using Art Nouveau Image

- Focus on the Decoration Detail Case -

Lee, Jung-Won\* · Cho, Kyu-Hwa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tual design cases of decorative detail in the Art Nouveau style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and create designs and fashion works to meet our contemporary fashion trends by means of over-decorative style, a characteristic of decorative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decorative detail in the Art Nouveau style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pleats appear with two major feels of solidity, undulated and curvilinear solidity based on gather(ruffle, frill/ flare and flounce) and regular and linear solidity based on linear pleats or tucks.

Second, embroidery appears in various patterns developed with stitch of solid feel as well as a variety of coloration effects.

Third, attachments are expressed by means of independent motif(appliqué), gloss effects(beads, sequins), affluent texture and mobility(fur, feather).

Moreover, according to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aspects of pleats, embroidery and attachments, it is found that decoration detail in the era of Art Nouveau is over-decoration style. Indeed, it appears in major expressive aspects such as rhythmical solid type, detailed prominence type, superficial touch type and profound volume type.

---

Corresponding author: Lee, Jung-Won, Tel.+82-11-1720-5625  
E-mail: rkemsd@hanmail.ne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design fashion works using attachments under one theme - Neo-Amethyst.

Neo-Amethyst refers to double panel evening dress with S-letter silhouette using natural curviness of human body. Natural waved form of dress which consists of several curves and is made of silk chiffon for natural draping effects highlights natural but beautiful contours, and reflects on elements of retro style, while appearing in modern design looks. Additionally, beads and stone attachments are used for decorative to express solid and apparent contrast effects through design points.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 Nouveau images into dress designs will be able to show another new ways of dress design as well as reproduce retro styles, and allow us make dress works with more originality, higher value added and higher merchantability. In add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 Nouveau style to our contemporary costumes in diversified fashion trends around the 21st century will help u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Art Nouveau style and make it rooted as a new artistic possibility in our modern fashion.

**Key Words** : 아르누보(art nouveau), 과잉장식(over decoration), S자형 스타일 (S-letter style), 아우어글래스 스타일(hourglass style)

## I. 서론

21세기 전후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기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표준화, 규격화된 제품들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산업화 이전의 개성과 다양성을 표현함으로써 다소 표현이 자유로웠던 과거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복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고현상은 의상뿐 만 아니라 음악, 영화, 광고 분야 등 광범위하게 시도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복식분야에서는 복고 요소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재해석해 현대적인 트렌드와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로 창조되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는 경우, 형(形)과 색(色)이 그 시대 사람들의 미적 요구를 충족시켜<sup>1)</sup>트렌드화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패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점차 획일적인 유행을 추종하기 보다는 유행 안에서도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의 특성이 뚜렷하며, 디테일 부분을 살펴보면, 다양한 색상, 형태와 장식의 장식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해외 여러 컬렉션<sup>2)</sup>에서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큐뮤티르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장식적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공예적 디테일의 장식적 패션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식 디테일은 희귀성, 희소성을 부각하며, 개성적 표현, 아이덴티티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부가가치적인 요소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동적인 곡선, 섬세한 수공예적 모티프의 주름, 자수, 부착 등 고급스러우면서도 다양한 과잉장식을 불러일으킨 아르누보 양식을 연구하고 그 이미지를 드레스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스테판 슈의 메드슨(Stephan Tschudi Madsen)의 <アルヌボ><sup>3)</sup>등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장식 디테일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을 실행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9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까지의 아르누보 양식에 따른 장식 디테일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바탕으로 아르누보 양식과 아르누보 패션 양식의 장식 디테일의 미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패션의 장식 이미지를 적용한 디자인 실물작품 2점을 직접 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를 적용한 의상을 상품성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디자인

의 창의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패션 상품이 되도록 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기사 및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시대적 배경, 아르누보 패션스타일과 소재, 아르누보 패션의 장식 효과에 따른 디자인 사례에 대한 고찰을 선행하고, 장식 디테일의 특성이 과잉장식 양식을 사용하여 현대 패션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기획하고 실물 의상을 제작하였다.

## II. 아르누보 양식의 배경과 특성

### 1. 아르누보 양식의 배경

19세기 후반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생산에 의한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만능주의는 진정한 예술을 파괴한다는 자각으로 존 러스킨의 사상과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생산물에 반대하고 수공예품에 가치를 두자는 사회주의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s movement)이 일어났고, 이것은 아르누보 양식이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 미술공예운동은 역사적 관심과 복고적 경향, 모든 일상생활용품에 풍부한 장식을 위주로 예술품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형태보다는 정신에 있어서 아르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르누보의 형성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도입되어 융합되었다. 러스킨 사상과 동일한 정신에서 나타난 것이 라파엘 전파(pre-raphaellite)이다. 이는 초기 르네상스의 단순하고 소박한 양식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근본적이며 일상적인 것에서 미의 발견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으로 여성과 꽃의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고딕에 대한 동경은 미술공예운동이나 라파엘전파에서도 공통된 요소였다. 고딕장식은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연주의적, 생물학적 표현으로 중세인의 소재 사용이나 뛰어난 감각은 성실한 태도와 함께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세에 대한 열광과 더불어 켈트(Celt)인의 눈부신 예술과 장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켈트의 서(書)(The Books of Kells)'<sup>4)</sup> 등

필사본의 중세적으로 뒤얽힌 모티프는 아르누보 양식에 동화되기 쉬었다. 아르누보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중 하나가 일본 및 동양 예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장르에 파급되어 세련된 여백의 처리와 공간의 이용, 명암이나 원근법을 무시한 자유로운 화면 배치와 평면적인 처리기법, 선과 윤곽의 강조, 표면의 단조로움, 좌우비대칭의 원리 등을 배우게 되었다.

아르누보는 세기말이라는 시대사조로 현실을 도피하고 외부세계를 개인의 내연적인 고뇌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아르누보 양식과 그 특성

아르누보(Art Nouveau 프: 신예술: 新藝術)란 1890년경에 등장하여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한 조형예술의 지배적인 과잉장식 양식을 말한다. 아르누보는 'art'와 'nouveau'의 합성어로 명칭 그대로 '신예술'을 뜻한다<sup>5)</sup>. '아르누보'란 명칭은 1895년 파리에서 사무엘 빙(Samuel Bing)이 개업한 미술상점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Art Nouveau'는 'art'와 'nouveau'의 합성어로 명칭 그대로 '신예술'을 뜻한다. 독일의 '유겐트양식(Jugendstil)', 프랑스의 '기마르 양식(style of Guimard)', '오르타 양식(style of Horta)', 이탈리아의 '리버티 양식(stile liberty; 런던의 백화점 리버티의 이름에서 유래)' 등 양식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다.

아르누보 양식은 새로운 부흥 양식으로서의 제2의 르네상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시기를 모던 에이지(modern age) 혹은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고도 한다. 아르누보 양식은 19세기 말 교통 통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양식의 특성이나 명칭이 획일적이 아니고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유럽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를 휩쓸었다.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을 스테판 슈의 메드슨(Stephan Tschudi Madsen)이 그의 저서 아르누보(Art Nouveau)에서 밝힌 바와 같이 4가지 개념의 양식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추상적·구성적·상징적 신예술인 아르누보 양

식(Abstrack and Structual, Symbolical Art Nouveau Style).

둘째,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양식(Floral and Organic Art Nouveau style).

셋째, 선적·2차원적·상징적인 아르누보 양식 (Linear and two-dimensional Art Nouveau style).

넷째, 구성적·기하학적인 아르누보 양식(Constructive and Geographical Art Nouveau style).

아르누보 양식은 뭉크(Edvaed Munch, 1863~1944)의 회화에서 시작되어 점차 건축, 가구, 금속 공예, 복식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르누보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미술 양식에는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 brotherhood)와 인상주의(impressionism),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비어즐리(Vincent Bearsley, 1872~1898)와 로트렉(Toulous Lautrec, 1864~1901)의 회화가 유명하지만 회화에서는 곧 사라졌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오르타 양식, 기마르 양식 등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 또한 바로크, 로코코 양식과 중세 켈트 양식, 일본 취미 등 다양한 특성을 지녔다.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은 C자, S자 scroll 등 과잉장식의 곡선 형태를 표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식물의 넝쿨, 꽃, 줄기, 파도 등이나 당초문과 같은 장식성이 넘치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정교하고 여성적이며 유동적인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색채는 부드럽우면서 우아한 색조를 주로 사용하였다.

아르누보 양식은 과잉장식을 불러일으켜 과잉장식의 범람으로 다음세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르누보의 최후의 꽃은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萬國博覽會)였다. 아르누보 양식의 파리 에펠탑은 1889년에 건설되었다.

### III. 아르누보 패션 스타일과 소재

#### 1. 아르누보 패션의 출현

아르누보 양식은 “세기말”과, “벨 에포크”, “데카당스”와 “상징주의” 및 “유미주의”를 배경으로 “장식을 위한 장식”, “예술을 위한 예술”로써 동·식물 문양과 상징적인 주제에 의해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

과 화려한 장식의 특징이 있다. 또한 동시에 민족적 이면서 이국적이고, 문학적이면서 조형적이고, 신비적이면서 관능적이고, 퇴폐적이면서 환상적이고, 미래적이면서 전통적인 성격을 나타낸다<sup>7)</sup>.

파리는 변함없이 문명세계의 향락과 우아함과 예술의 도시로써 세계 모드의 중심지였다. 국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고, 에펠탑이 건립되는 전기의 해이기도 한 1889년에는 몽마르트에 ‘몰랑루즈(Moulin-Rouge)’가 오픈되고<sup>8)</sup>, 몰랑루즈와 캉캉 춤은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이름이 된다<sup>9)</sup>. 스커트를 걷어 올리고 도발적으로 춤을 추는 캉캉 댄서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로트렉이 자주 그렸던 라 글뤼나 잔느 아브릴 등 톱 댄서(top dancer)는 쿠르튀잔(courtisane)나 코코데트(cocodette)와는 다른 여성적이고 관능적인 새로운 여성그룹을 대표했다. 이들과 더불어 상류사회와 예술가들의 사교장이던 ‘문예 살롱’을 주최하는 구 귀족이나 부르주아부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특징짓는 유명한 무대 여배우들이 각기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며 화려한 패션 리더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로움’이 모든 분야에 제 1의 가치 기준이 되고, 아르누보는 모든 일상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와 정신에 맞는 ‘종합 디자인’을 꾀하며, 디자인은 순수예술의 영역에 올라섰다. 패션 디자인도 예술과 복식이 결합하며 복식은 하나의 생활조형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정신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발돋움 한다<sup>10)</sup>.

새로운 정신과 스타일의 창조자로서 보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자크 뒤세(Jacques Doucet), 잔 & 가스통 워스(Jean & Gaston Worth), 파퀀(Paquin), 잔느 랑뱅(Jeanne Lanvin), 칼롯(Callot)자매, 레드 팬(Red-fern) 등이 각자 자신의 메종을 열고 작품세계를 펼쳤다. 아르누보 제전이었던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파리 오투쿠튀르계도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sup>11)</sup>.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폴 푸아레(Paul Poiret)와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의 출현과 함께 패션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 시기는 또한 연극의 전성기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많은 여배우들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당시 아르누보 예술가들의 최상의 후원자이기도 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들 여배우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무대 의상을 제작함으로써 이들 여배우들의 명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그 디자이너 및 메종을 선전하여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연극의 무대의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디자이너들은 일반 의상디자이너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양식 감각을 무대의상에서 구현하려 했다<sup>12)</sup>. 세기말 이래 동양취미, 이국취미에 젖어있던 분위기에서 러시아 발레는 동양의 이국적인 무드로 유럽을 열광시켰다. 동양취미는 아르누보 양식의 커다란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아르누보 패션에는 동양의 이국적인 모드가 도입되어, 일련의 오리엔탈 모드가 등장하고 다른 스타일에도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나타나게 된다.

## 2. 아르누보 패션 스타일

### 1) 아우어글래스 스타일

아르누보 영향기 바로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버슬 스타일은 기계 문명의 산물인 러플, 리본, 브레이드, 레이스, 꽃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환상적이고 퇴폐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르누보의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 감각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자 환상적인 버슬 스타일은 무겁게 느껴졌다. 따라서 변화된 미의식에 부응한 복식의 형태는 크게 부풀리려고 고심하던 버슬의 심한 곡선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스커트 형태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날씬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1890년대부터 스커트의 실루엣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장식도 없어지고 단순해지는 반면, 관심의 초점이 상체의 어깨와 소매로 옮겨지면서 어깨를 장식하고 소매를 여러 형태로 부풀려 주기 시작했다. 1890년대 중반에는 큰 소매 형태와, 가는 허리, 플레어로 퍼진 치마 등의 전형적인 아우어글래스 스타일(hourglass Style)<sup>13)</sup>, 김슨걸 스타일<sup>14)</sup>이 등장했다.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커다랗게 부풀린 소매의 과장된 비례는 아르누보 취향이고, 소매를 다른 색이나 다른 직물로 만들거나 큰 장식 천을 덧붙여 그 실루엣을 더 강조한 변화와 참신함은 모

두 일시적인 기분에 의한 세기말적 현상이며, 끈임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아르누보의 감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거대했던 소매는 1897년에 갑자기 좁은 소매 형태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힘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힘은 더 이상 힘 드레이프나 힘 백으로 장식되지 않았고 인체의 곡선을 나타내면서 밖으로 돌출되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게 되므로 옆에서 본 모양이 S자 형태를 이루게 되어 아우어글래스 스타일은 S자형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

### 2) S자형 스타일

1900년을 전후, 버슬 등의 스커트를 이상하게 부풀게 하는 소도구가 모습을 감추고 구조적으로는 약간 단순화 되었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코르셋으로 조여져 있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00년에 시작되는 “S”자형 스타일(S letter Style)의 유행이다<sup>15)</sup>. 이 형태는 1900년경부터 1910년경까지 유행했던 스타일로 특수한 코르셋에 의해 가슴을 새처럼 나오게 하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며 힘은 튀어나오게 하고 스커트는 트럼펫처럼 퍼지게 하여 옆으로 보았을 때 S 자형을 이룬 형태를 말한다<sup>16)</sup>. 1902년부터 S자형 실루엣을 더욱 굴곡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최대한 더 많이 밖으로 돌출시키고, 앞 허리선은 아래로 뾰족한 곡선을 그리며, 더욱 가늘게 강조시켰다. 바스트라인부터 허리 사이의 미드리프를 앞으로 더욱 굴곡지게 만들어 주기 위해 코르셋 가슴부근에 프릴을 잔뜩 채운 고래 뼈가 든 캐미솔이나 조끼 등을 착용하고 여성들은 그 위에 손수건이나 부드러운 형견을 등글게 뭉쳐 넣어 더욱 가슴을 풍성하게 했다<sup>17)</sup>. 앞뒤가 굴곡진 이 인공적인 S자 형의 라인인 길게 휘어져 흐르며 물결치는 것과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르누보의 특성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스커트가 옷 전체에서 따로 분류되어 블라우스, 재킷과 코디시켜 입었으며, 스커트는 유동적인 곡선을 나타내는 6~12개의 절개선이 있는 롱 플레어스커트가 주류를 이루었다<sup>18)</sup>. 이는 몸을 가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서 햄 라인까지의 곡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아르누보 양식의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과 일치되는 특

성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S자형 실루엣은 배를 압박하고 신체의 굴곡을 강조하여 허리 라인이 점차 올라가 그리스 스타일(greece style)을 암시하게 되는데 그리스 스타일이 되어도 아르누보의 본질적인 S자형 실루엣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 3) 호블 & 페그 탑 스커트, 미나레 스타일

1905년 이후 S자형 실루엣의 초점이던 바스트와 힙의 과장이 약해지며 힙은 오히려 협소해지고 전체적으로 튜블러한 실루엣인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 페그 탑 스커트(peg top skirt)와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이 나타났다. 유럽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하면서 일본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고유복식의 화려한 색채와 실루엣이 복식이 유행했다. 그 중 기모노가 패션에 있어서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모노는 이국취미를 만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모노의 드레이퍼리와 길게 흐르는 듯한 유연한 곡선이 아르누보적인 취향과 부합했다. 이후 1910년대 유럽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과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 등 유럽 여자복식에 동양적인 요소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폴 푸아레(Paul Poiret)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포착하여 여자의 자연스러운 신체의 곡선을 살리는 우아한 스타일을 창안했다. 동양적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하렘 스타일(harem style),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 기모노 스타일(kimono style), 소매 없는 튜닉, 터번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폴 푸아레가 선보여 1910년~1914년에 유행했던 호블 스커트는 바디스에서 무릎까지 부풀리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극도로 좁아지는 실루엣이다<sup>20)</sup>. 1911년 호블 스커트와 함께 페그 탑 스커트가 유행했는데, 페그 탑 스커트는 허리선 양옆에 드레이프되고 힙은 부풀리고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또한 아라비안과 페르시아는 곧, 하렘(harem)을 상징하는 모드로 터번과 발목 부분에 풍성한 주름이 있는 오달리스크(odalisque)의 의상인 하렘 팬츠(harem pants)가 이 시기를 풍미했다. 폴 푸아레는 1912년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이라는 또 하나의 오리

엔탈 모드를 발표했다. 이는 호블 스커트 위에 힘 길이의 튜닉을 덧입는 스타일로 당시에 크게 유행했다. 보통 하이 웨이스트에 벨트를 매는데 이러한 형태는 앞에서 보았던 호블 스커트 위에 한 겹이나 2~3겹의 튜닉을 입은 것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러한 이국취미는 근본적으로 보다 새로운 것, 색다른 것, 기묘하고 자극적인 것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호화롭고 진기한 보석과 독특한 깃털, 원색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했다.

### 3. 아르누보 패션의 소재 및 색채

아르누보 양식은 본질적으로 호화롭고 장식적인 스타일 이었다. 1890년 이래 실루엣이 슬림 하게 되면서 옷감과 디테일에 장식이 집중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려한 장식을 했다<sup>21)</sup>. 특히 아르누보는 “2차원적 평면의 예술”<sup>22)</sup>이라고도 하듯이 평면 장식이 주요한 장식요소인데 그러한 의미에서도 직물은 아르누보의 중요한 분야가 된다.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술공예운동과, 오랜 전통의 결과로 직물은 영국에서 가장 발달했는데 아르누보 직물의 디자인 제작에 있어 단연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은 런던의 리버티(Liberty)상회이다. 1880년대부터 오리엔트 풍의 상품, “예술가구”와 함께 일본의 견, 린넨, 나염한 목면 등을 전시 판매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장식품과 공예품 새로운 취향의 직물을 판매하여 “Liberty Print”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의 하나가 되었다. 아르누보 직물에는 아르누보 취향의 동·식물 모티프와 아라베스크 문양이 병렬되고 반복되어 있다. 특히 동양취미로 양귀비, 아이리스, 수련, 은방울꽃 등이 서로 얽히고 휘감기며 아르누보 장식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실루엣을 장식적이면서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레이스와 시폰, 툴과 같은 얇게 비치는 옷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1904년 파리 갈리에라 궁에서 옛 레이스 전시회가 개최되고, 또한 레이스가 예술적 창작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sup>23)</sup> 그 자체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상징으로써 대단히 선호되었다. 이밖에도 오간자, 조젯, 크레이프, 얇은 리넨 등 주로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고<sup>24)</sup> 이러한 얇고 호화로운 옷

감으로 장식적인 디테일과 트리밍을 가했는데 특히 턱, 플라운스, 프릴, 러플, 플리츠, 개더 등이 주로 사용됐다. 그리고 옷감에 꽃과 식물무늬의 수를 놓는 장식이나 리본, 꽃, 애플리케, 보석, 태슬 장식을 사용하여 과잉장식을 나타냈다. 또한 아르누보 패션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모피는 가장 인기 있는 소재중 하나가 되었으며 모피 가공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트리밍이나 외투의 안뿐만 아니라 외투 전체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모피와 함께 깃털 역시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요소로써 모자나 터번, 헤어밴드 한 머리에 주로 꽃았다. 사회적인 부와 지위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신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식을 의상에 부착하기도 했다. 고급 자수와 비즈, 브레이드, 시퀸, 리본 등이 많이 부착된 화려한 복식일수록 귀족들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여성들도 자신의 부와 명예를 복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다양한 장식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아르누보 패션의 한 특징을 표현했다.

색채를 살펴보면, 1890년대 이전의 어둡고 칙칙한 색조에서 부드럽고 연한 환한 색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느낌의 색채효과를 얻기 위해 옅은 그린, 블루, 핑크, 바이올렛, 올리브 등의 연한 색, 우아한 색, 퇴색한 색과 함께 블랙 화이트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 IV. 아르누보 패션의 장식효과

### 1. 주름에 의한 장식

#### 1) 곡선형 주름

##### (1) 개더(Gather)

개더는 직물의 여유분을 몇 줄의 스티치를 한 후 잡아당긴 것<sup>25)</sup>으로 천을 여러겹으로 겹쳐 성기게 꿰매거나 재봉틀로 실을 당겨서 잔주름을 잡은 것을 말한다. 개더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부드러움과 화사함, 활기참을 표현하며 약간의 음영효과도 있다(그림1)<sup>26)</sup>. 조형의 수단으로 시작된 개더는 점차 장식성을 띄게 되었는데 개더에서 발전된 주름의 형태로

셔링(shirring), 러플(ruffle)등이 있다(그림2)<sup>27)</sup>. 러플은 가장자리 장식으로써 사용되는 한쪽 단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다른 쪽이 펴려떨어지거나 양쪽 모두 펴려이게 하는 장식이다. 드레스, 블라우스의 칼라나 앞 중심 단, 밑단 등에 장식적으로 사용하여 3차원적인 자유 곡선에서 생기는 리듬감과 율동감을 표현함으로써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아르누보 양식을 표현했다. 아르누보 시대의 러플 장식은 부분적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나, 러플 스커트나 블라우스 등과 같이 의상 전체에 여러 단의 러플로 장식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러플의 종류는 직선적인 직물조각의 한 부분에 개더를 잡아 만드는 직선형 러플(straight ruffle)과 도넛 같은 원형의 형태로 재단하는 원형 러플(circular ruffle)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sup>28)</sup>. 직선형 러플은 완성 폭의 약 2~3배의 치수로 재단하여 개더나 주름을 잡아 사용하는데, 직선형 러플의 형태로 폭이 좁은 것을 프릴(frill)이라고 한다. 주로 드레스나 블라우스 등에 트리밍으로 사용된 러플의 형태를 말하며, 벨 에포크 시기에 빈번하게 사용된 프릴은 좁은 폭의 직물 한쪽 면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의복의 가장자리에 붙여 하늘하늘하게 표현했다(그림3). 프릴 장식은 리드미컬하고 유동적인 곡선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리듬감과 파상의 곡선적 입체감의 아르누보 특성을 잘 나타낸다. 원형 러플은 큰 원형의 중심에서 작은 원형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재단하는데, 안쪽 선을 직선에 박으면 바깥쪽 가장 자리가 울결치는 듯한 모양이 되면서 플레어형의 주름이 나타난다. 원형 러플은 플레어형 주름인 플라운스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 (2) 플라운스(Flounce)

플라운스는 남은 여유분을 모아서 만드는 오글거리는 주름과는 달리 밖으로 뻗어나가는 식으로 밑단을 나팔꽃 모양으로 벌려서 파도 형태로 너울거리는 주름을 말한다(그림4).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플레어는 주로 스커트나 재킷의 헴 라인 등에 많이 이용되었고 아르누보 시대에 주로 사용된 칼라, 스커트 등에 하늘하늘하게 흘러내리는 장식 천을 일컫는 카스케이드(cascade)도 플레어형 주름의 일종이다. 아르누보 시대에 특히 유행한 플라운스는 부드

럽게 물결치듯 너울거리는 주름이 특징이며, 한쪽 면이 반대쪽보다 긴 직물조각을 말한다. 안으로 굽은 짧은 면을 직선으로 펴서 직물에 붙이고, 더 긴 쪽의 남은 여유분이 굽이치는 주름의 형태를 나타내며, 전체에서 특정한 부분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줄로 반복 사용하여 직물 부분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그림5). 또한 드레스에서 네크라인과 스커트에 사용하여 엄격한 드레스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직물의 안과 겉이 모두 보이는 플라운스의 특성은, 물결치는 듯한 리듬감과 구불구불한 율동감으로써 아르누보 양식의 감정과 화려함을 시각적으로 더욱 잘 표현했다.

## 2) 직선형 주름

### (1) 플리츠(Pleats)

플리츠는 개더나 러플 등과는 달리 눌러서 규칙적으로 접은 주름의 형태으로써 직선형 주름이다. 주로 스커트나 블라우스, 드레스 등에 사용되었고 주름의 윗부분을 스티치 하여 주름 분량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플리츠는 가지런히 놓은 정지 상태에서는 평면적이지만, 동작이 가해지면서 다이내믹한 움직임에 의해 활동량이 커지는 특징 때문에 유동성이 강하면서도 개더보다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sup>29)</sup>. 로코코풍의 와토 플리츠(Wateau pleats)나 지그재그 형의 아코디언 플리츠(Accordion pleats)(그림6) 등이 주로 사용됐고<sup>30)</sup> 가운 전체에 플리츠를 하거나, 부분에 장식 하였다. 플리츠는 직선적인 입체감, 규칙성, 리듬감의 특성을 보이고, 다양한 미적 변화와 심리적 효과를 나타내며, 복식에 있어 조형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아르누보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인 요소로 자체의 구조적인 조형감과 동시에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부풀면서 입체적 효과를 나타냈다.

### (2) 턱(Tucks)

턱 장식은 흰색 룩 드레스의 소매나 바디스 부위에 주로 사용되었고 드레스 전체를 턱 장식한 스타일도 있었다. 턱은 자보나 수예적인 장식을 가한 블라우스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의상들은 특

별 주문에 의한 손바느질을 이용한 작품이며, 전면적으로 핀턱을 잡고 레이스를 삽입하는 등 수공이 많은 고가(高價) 의상이었다. 턱과 플리츠를 살펴보면, 그 표현 형태는 비슷하나 그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즉 정지상태의 평면적인 구조에서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움직임이 있거나 구면(球面)위에서 플리츠는 주름이 퍼져 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이에 비해 턱은 고정되어있고 움직임에도 변화가 없는 장식이다<sup>31)</sup>. 턱은 장식적이면서도 다트를 대신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인체의 굴곡에 맞추어 피트되도록 함으로써 몸에 꼭 맞는 착용감을 부여 할 수가 있었다(그림7). 턱은 직물 자체의 두께 감을 증가시켜 직물을 안정화시키고 주름을 납작하게 눌러 입체감이 거의 없게 표현하거나 접힌 주름 분이 반대로 꺾는 등의 처리를 통해 입체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입체적인 깊이감과 리드미컬한 반복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했으며 소재와 스티치, 기법과의 결합을 통해 평면적인 느낌위에 요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재질감의 변형’으로 시각적 효과 표현했다. 또한 주름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크로스 스티치 턱(그림8)은 3차원의 조각적인 표면효과를 나타냈다.

## 2. 자수에 의한 장식

### 1) 입체감을 주는 스티치

아르누보 시대에는 옷감에 화려한 꽃과 식물무늬의 모티프를 이용하고, 다양한 컬러나 재질의 실을 사용하여 표면을 장식하는 자수가 사용되었다. 표면 감촉에 의한 엠보싱효과, 얇은 깊이의 입체감, 다채롭고 화려한 색감과 광택이 아르누보 시대의 자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모티프 형태로 장식된 자수는 마치 패턴처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장식 양식이다. <그림9><sup>32)</sup>에서 긴 줄기의 이국적인 식물로 구불구불한 혹은 바람에 날리는 듯한 유기적인 움직임과 율동감을 표현했다. 여기에 조화와 리본장식, 진주와 크리스탈 비즈 스팅글 등을 과도할 만큼 덧붙여 그 호화취미를 나타냈다. <그림10><sup>33)</sup>의 긴 트레인 슬리브의 웨딩 가운은 에르테(Erté)<sup>34)</sup>가 정교하게 디자인한



웨딩 가운 시리즈 중 하나이다. 이 드레스는 그의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드레스는 사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다. 원피스로 만든 흰색의 크레이프는 기묘하게 컷 되었고 하이 네 크라인은 은색 핀으로 고정시켜 머리장식으로 사용되었다. 긴 트레인 슬리브 전체에 은사로 화려한 자수되었고 산 족제비 털로 트리밍하여 장식효과를 나타냈다. 당시의 유명한 패션 리더 중 한사람인 알렉산드라 공주는, 금빛 얇은 실크 드레스를 흰색 망사로 덮고 그 위에 금사로 자수를 놓았고(그림 11)<sup>35)</sup>, 또한 1902년에도 화려하게 수놓은 드레스에 꽃, 리본과 주름 장식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그림 12). 이처럼 에르테의 디자인이나 알렉산드라 공주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의복 표면 전체의 섬세한 자수는 과도한 장식효과를 내었고 오랜 시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고위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했다.

19세기말 자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양풍의 취향과 색채가 많이 나타났고, 식물, 꽃, 부드럽게 음영진 실크와 소모사에 자수된 우아한 붓꽃과 당초, 튜립, 양귀비, 해바라기 등과 우아한 학과 공작새의 모티프로 표현했다. <그림 13>의 일본풍의 자수와 술 장식을 한 핑크와 블랙 벨벳의 랩은 아르누보 패션의 한 성격인 오리엔탈리즘을 나타낸다. 또한 의상의 가장자리 장식은 매우 기하학적인 모티프를 많이 사용하는 자수의 사용이 특징이다<sup>36)</sup>. <그림 14>와 <그림 15>, <그림 16>는 에르테의 디자인으로 각각 드레스의 트레인과 소매부분에 화려하게 자수 장식을 하였다. 먼저 <그림 14(우)>은 플레인 한 바이올렛의 새틴 가운이지만, 검정색의 긴 벨벳 트레인에 자수 장식을 함으로써 화려한 감각이 연출되었다. 다음 <그림 15>는 블랙 새틴을 과도하게 두르고 소매를 볼륨감 있게 드레이퍼리한 드레스로써 소매 안쪽 부분에 금사로 빈공간이 없도록 장식을 하여 표면 질감이 입체적으로 나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16>은 라임 그린 색과 검정색의 벨벳으로 제작한 랩으로 소매 부분에 금사로 정교하게 자수 장식을 하였다. 이러한 부분 자수 장식은 의복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다채롭고 호화로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당시 자수 장식의 특성은 섬세하고 정

교하며, 의상 전체에 걸쳐 화려하게 장식되기도 하였고, 일부분에만 여성적인 꽃문양이나 곡선적인 라인으로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장식 요소와 어울려 더욱 풍부하고 화려하게 표현되기도 했다. 또한 대담한 모티프나 화려한 색감, 풍부한 광택으로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여성미를 표현했다.

### 3. 부착에 의한 장식

#### 1) 동일 재료에 의한 부착 장식

##### (1) 아플리케(Appliqué)

아플리케는 디자인에 따라 모양이나 색상이 다른 형질을 오려서 바닥 천위에 덧대기 때문에 장식적인 효과가 크다. 1901년 St. Paul's의 Embroiderers' Guild가 만든 케이프를 보면 붉은색 실크 다마스크의 표면에 심홍색 벨벳과 금색 코르텐, 그린 색 실크, 캔버스 등으로 프랑스 왕실문장과, 왕관, 레터링, 불꽃같이 퍼지는 해 등의 모티프를 아플리케 하였는데 금사 자수와 금속 스펅글 장식 등이 어우러져 표면에 명확하게 입체감을 더하고, 색채 대비를 나타냄으로써 화려한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17)<sup>37)</sup>. 당시에는 아플리케 모티프 안에 솜을 넣어 볼록하게 하거나(padded appliqué)(그림 18), 바닥 천에 붙일 때 모티프 전체를 바닥 천에 붙이지 않고 일부분만 붙여 움직임의 여지를 주는 방법(그림 19)으로 장식에 시선을 모았다. 먼저 <그림 18>은 에르테가 디자인한 레저용의 로브이다. 펄 그레이 새틴으로 만든 로브의 표면에, 안쪽에 솜을 넣어 볼록하게 만든 컬러풀한 과일 모티브를 아플리케하여 독특하고 입체적인 장식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19>는 1900~1905년에 위스가 디자인한 무도회 가운으로 아이스 블루 실크 새틴에 스크롤링된 리본과 바구니를 묘사한 무늬를 금사로 수놓았으며, 아이보리색 마퀴셋(marquisette)을 원형으로 컷팅하고 라인을 모아 꽃잎의 경계선이 부드러운 입체적 효과를 내도록 한 뒤 표면에 아플리케 하였다. 특히 사용하는 직물의 패턴이나 텍스처를 활용하면 다양한 회화적 표현이 가능했는데, 간단한 모양부터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단계까지 그 표현방법이 매우 다양했다.

## 2) 이질 재료에 의한 부착 장식

### (1) 비즈(Beads), 시퀸(Séquin)

비즈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러하듯이, 아르누보 시대에도 권력과 부를 상징하며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고 이 시기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장식양식이다. 비즈 장식은 흑옥, 수정, 녹색의 비취, 산호 등의 사치스러운 보석과, 유리비즈, 나무비즈, 크리스탈, 라인 스톤(rhine stone), 엠브로더리 스톤(embroidery stone)을 사용함으로써 아르누보 패션의 한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목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의 사용뿐 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비즈 자수로 의상에 장식함으로써 마치 텍스처로 느껴지도록 입체감을 표현하는 장식과 옷감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거나, 길게 늘어뜨리고, 여러 겹으로 감기도 하는 등의 장식으로 당시의 특징 중 하나인 호화로우움을 볼 수 있다. 특히 에르테는 비즈 장식의 화려함을 나타낸 일러스트를 많이 선보였는데 “Amethyst”는(그림20) 그중 하나이다. 이 일러스트에서는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자주색 스톤이 주된 모티프이다. 머리카락의 구불거림과 감각적인 손 움직임이 빛을 반사하는 스톤의 반짝임, 곡선적 나열과 조화되어 벨 에포크의 향락과 에로티시즘의 색채를 더해준다. <그림21(좌)>는 흑백 시폰을 정교하게 패치워크 한 이브닝드레스로써 소매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이 크리스탈이나 흑옥을 사용하여 부착 장식되어 있으며, <그림21(우)>의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이브닝드레스 또한 상의와 소매부분이 전체적으로 크리스탈이나 흑옥을 사용하여 부착 장식되어 있다. 이어서 1910~1914년, Callot Soeurs의 이브닝 가운을 살펴보면, 베이지 코트 틀에 금빛, 은빛, 분홍빛, 구리 빛의 시퀸과 비즈가 장식되어 있다(그림22). 시퀸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예를 들면, 불꽃 회오리 모양으로 금속 세공하여 구멍 뚫은 것, 망치로 얇게 두드려 편 것, 크리스탈 위에 금속 조각을 겹쳐 놓은 것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각기 조명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의 반사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전체가 시퀸 장식된 드레스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표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시퀸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도안에 여러 겹으로 사용되어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물전체에

전반적으로 퍼져서 장식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비즈와 시퀸 장식은 주로 옷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현됨으로써,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빛을 반사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며, 단순한 소재에 흥미를 더하거나 표면에 반짝이나 광택을 주어 뚜렷한 명암효과를 표현했다.

### (2) 모피(Fur), 깃털(Feather)

당시 패션에서 또한 모피가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 모피는 트리밍이나 외투의 안(lining)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했는데, 모피 가공 기술이 향상되어짐에 따라, 값비싼 친칠라나 지브린느(흑초피) 코트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그보다 값싼 수달이나 비바, 스컹크 등이 등장함으로써, 모피코트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모피 코트뿐만 아니라 솔, 긴 스톨과 머프등도 유행하게 되었다. 당시의 모피 코트와 스톨, 머프, 보아 등은 단순히 동물의 털 뿐만 아니라 맹수의 머리와 발톱 등도 포함되어 나타났다. <그림23>에서 깃털을 사용한 머리카락의 표현이나, 맹수의 머리와 다리, 발톱까지 달린 모피를 이용한 코트의 표현은 에르테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이며, 아르누보 그래픽 디자인에서 일반적인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세기말적, 이상적, 유희적 특성을 나타내며, 관념적으로 혐오스럽고, 기괴함의 특성을 미적인 요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디자인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에르테가 디자인한 이브닝 가운을 살펴보면 모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풍부한 재질감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깊이 있는 볼륨형으로 나타나고, 짐승의 털,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만든 긴 보아나 스톨의 유동적인 라인과 동물의 감각적인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양식을 나타낸다(그림24, 25).

깃털은 딱딱한 인공 소재가 아닌 부드러운 천연 소재로써, 고유의 탄성과 복원력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지 않고 고유의 형상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모피와 함께 사용이 빈번하였다. 깃털은 우아함과



<그림1> 개더 주름 드레스, 1913-Gazette du Bon Ton, N°3 -Pl.II.



<그림2> (좌)러플 스커트 (우)프릴스커트, 1914 -Gazette du Bon Ton-N°3, Mars1914-Pl.26.



<그림3>프릴장식 핑크가운, 1898 -Haute couture, p.34.



<그림4> 플라운스 장식 Robe de bla en Taffetas, 1914-Gazette du Bon Ton- N°5,Mars1914-Pl.50.



<그림5> 플라운스 장식 드레스, 1914-Gazette du Bon Ton-N°3, Mars 1914-Pl.51.



<그림6>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 1914-Gazette du Bon Ton-N°3, Mars 1914-Pl.28.



<그림7> 핀턱 블라우스, 1907 -<http://www.fashion-era.com>



<그림8> 크로스 텍 블라우스 ,1907-<http://www.fashion-era.com>



<그림9> '봄의강변' 이브닝드레스, 1901 -*パリのモードの200年*,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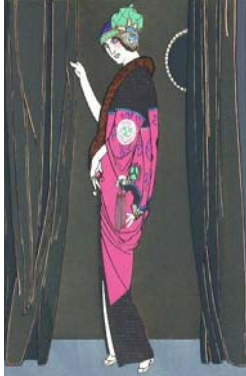
<그림10> 자수 장식의 웨딩가운, 1923 -*Design by Erté*, p.25.



<그림11> 알렉산드라 공주의 자수 장식 드레스, 1910-*세계의 패션사2*, p.24.



<그림12> 알렉산드라 공주의 자수 장식 드레스, 1902-<http://lafayette.150m.com>.



<그림13> "A la Comedie"  
Pauin: 일본풍 자수 장식의  
Theater Wrap, 1912  
-Gazette du Bon Ton,  
N°1-Pl.VII.



<그림14> (좌)비즈 장식  
드레스, (우)자수 장식  
트레인 드레스 -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50.



<그림15> 자수와 비즈  
장식 드레스-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48.



<그림16> 자수 장식  
랩, 1916-Design by  
Erté, p.15.



<그림17> 아플리케 장식캐이프,  
1901 -Twentieth-century  
embroidery in Great Britain,  
p.34.



<그림18> 아플리케 장식  
레저용 로브, 1919  
-Design by Erté, p.37.



<그림19> 아플리케장식  
Ball Gown 부분  
Jean-Philippe Worth, 1900  
~1905 -Haute Couture, p.48.



<그림20>"Amethyst"  
스톤 장식 일러스트, 1913  
-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8.



<그림21> 비즈 장식 드레스,  
1917-Design by Erté,  
p.18.



<그림22> 이브닝 가운  
부분 Callot Soeurs,  
1910~1914-Haute  
Couture, p.17.



<그림23> "La Belle et  
la Bete" 모피코트와  
깃털 장식-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20.



<그림24> 표범 모피  
장식 드레스, 1924  
-Design by Erté,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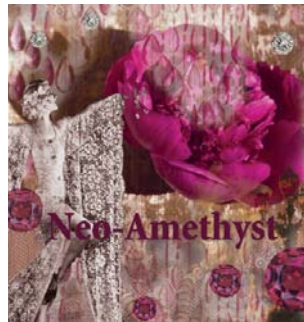
<그림25> 여우털 트리밍 장식-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40.



<그림26> "Feather Gown"-엘테 : *The Complete Graphic Works*, p.36.



<그림27> 깃털 드레스, 1920- Design by Erté,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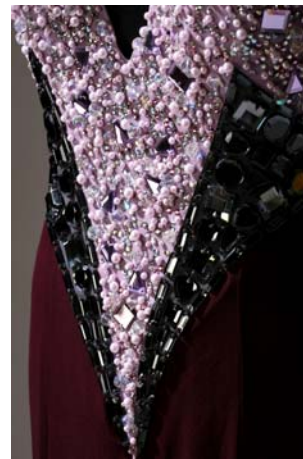
<그림28> Neo-Amethyst 이미지 맵



<그림29> Neo-Amethyst 더블 패널 이브닝드레스의 실물사진(앞)



<그림30> Neo-Amethyst 더블 패널 이브닝드레스의 실물사진(뒤)



<그림31> Neo-Amethyst 더블 패널 이브닝드레스의 실물사진 (부분)

<표 1> 장식 디테일의 기법의 분류에 따른 특성과 표현

	장식 기법	디자인 특성	과잉장식의 표현
주름	·곡선형주름-서링, 프릴, 러플, 플라운스	파상의 곡선적인입체감 반복을 통한 리듬감의 표현	리드미컬한 입체형 세밀한 요철형
	·직선형주름-플리츠, 턱	규칙적이고 직선적인 입체감 음영의 효과	세밀한 요철형
자수	·입체감을 주는 스티치	다양한 패턴의 전개 다채로운 색채효과	표면 감촉형 세밀한 요철형
부착	·아플리케	독립된 모티프 형	표면 감촉형 세밀한 요철형
	·비즈, 시퀸	빛에 의한 광택효과 다양한 패턴의 전개	표면 감촉형
	·모피, 깃털	풍부한 재질감 움직임에 의한 유동성	깊이 있는 볼륨형

金志映 · 曹圭和(2005), “패션디자인의 立體的表面效果에 關한 研究”  
*패션비즈니스 9(1)*, pp.14-20.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며, 드레스의 부분 또는 전체에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타조나 백로 깃털은 부드럽고 긴 털로써, 주로 모자나 터번 또는 헤어밴드 한 머리에 꽂아 사용하였고(그림23), 또한, 부채, 케이프, 드레스 등의 가장자리 장식에도 자주 사용했다. 당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는 긴 깃털과 꼬리를 가진 이국적인 새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깃털을 여러 겹으로 부착하거나, 다발이나 묶음으로 사용할 때에 볼륨감 있고, 사치스러운 느낌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그림26, 27). 이러한 표현은 깃털의 우아한 곡선과 풍부한 재질감으로 인해 빛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사시킴으로써, 화려한 장식효과를 표현하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볼륨감과 사치스러운 느낌이 강조될 수 있다.

## V. 아르누보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기획

### 1. 디자인 기획

21세기 전후 복고풍의 부활로 섬세하고 수공예적이며 장식성을 부각시킨 과잉장식이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기획에 있어,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아르누보 패션 장식 디테일의 이미지를 콘셉트로 현대 패션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한 창작 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아르누보의 과잉장식 양식을 잘 나타낸 대표적 디자이너인 에르테(Erté)의 작품 중, 자주색 스톤을 모티프로 한 “Amethyst”를 선정하여 그 이미지를 나타낸 “Neo-Amethyst”테마로 1점의 드레스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작하였다. 본 작품은 아르누보 양식의 부착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나타냈고, 당시 형태미를 반영하는 인체 곡선미를 이용한 S자형 실루엣으로 나타냈으며 여러 곡선으로 구성된 웨이브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강조하고 복고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냈다. 주요 타깃 층을 살펴보면 패션에 민감하며 실제 수요층이 가장 큰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연령으로 개인적인 사고가 강하고,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성향의 개성적인 여성이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층이 모임 또는 파티나 무대 등에서 각자의 개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의상 제작을 위해 기획했다.

## 2. 실물제작 및 작품 해설 <그림28,29,30,31>

### 1) 테마(Theme): Neo-Amethyst

- 자주색 스톤을 모티프로 한 에르테(Erté)의 작품 “Amethyst” 이미지의 에로틱하며 성인풍의 세련되고 엘레강스한 여성성을 표출함.

- 복고적이며 환상적인 감각의 장식 이미지와, 현대적이며 미래적인 화려한 감각의 장식 이미지를 나타냄.

- 수공예적이고 장식적인 디테일을 통해 인간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킴.

### 2) 아이템(Item)

- S자형 실루엣 더블 패널 이브닝드레스(S letter silhouette double panel evening dress).

### 3) 소재(Fabric)

- 걸감: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느낌의 실크 시폰.
- 안감: 광택 있는 스팸 실크.
- 부자재: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비즈, 화려함을 표현하는 스톤과 핫픽스.

### 4) 색상(Color)

Color	자주색 (주색)	연보라색 (보조색)	연회색 (보조색)
Pantone Color	Pantone 19-1726TP	Pantone 14-3206TP	Pantone 18-5203TP

### 5) 디자인 특징(Design Point)

- 아르누보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프린세스 라인으로 허리와 힙을 피트되게 디자인한 S자형 실루엣의 더블패널 이브닝 드레스이다. V자 형의 깊게 파인 네크라인으로 에로틱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부드럽게 드레이프 되는 실크 시폰 소재를 사용하여 뒤 중심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고, 뒤 중심에서 무릎 아래쪽에 플레어가 생겨 유동적인 곡선이 나타나도록 재단했다. 뒤 중심을 기준으로 허리 양쪽에 늘어지도록

디자인한 자주색과 회색의 더블 패널은 시폰소재가 바람에 날리는 듯 구불구불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중표피처럼 겹을 형성하는 레이어드 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아르누보 시대의 트레인 장식을 간소화해 특징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완벽한 대비로서 고도의 장식성을 수반하는 디테일 작업을 화려한 감각으로 나타냈다. 앞길과 뒷길의 상의 부분에 정사각형과 삼각형의 연보라색 스톤을 뿌린 듯이 부착하고 그 사이를 크기가 서로 다른 3가지 연분홍색 비즈를 섬세하게 장식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허리 부분은 디자인된 패턴의 곡선을 따라 직사각형의 스톤으로 형태를 잡아준 뒤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하트형의 회색 스톤으로 장식하여 단순한 소재에 흥미를 더하였고 표면에 광택을 주어 뚜렷한 명암효과를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핫픽스를 부착하여 스톤이 빛을 반사할 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 VI. 결론

기계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아르누보는 1890년대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대량 생산으로 인한 기계문명에 반기를 표하며 러스킨과 모리스를 중심으로 수공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르누보는 유기적이고 동적인 선의 중시, 동·식물의 모티프, 역사적 취미와 이국적 취미, 탐미적이고 향락적인 과잉장식과 호화 취미가 모두 반영되어 나타났다.

아르누보 패션은 아우어글래스 스타일로 표현되는 인위적인 부풀림 도구의 소멸에서부터, 코르셋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S자형 스타일, 그리고 코르셋 추방 이후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 기능적인 현대 패션이전까지의 호블 스타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때 오리엔탈 모드도 동시에 나타났다.

아르누보의 소재는 독특한 동·식물 모티프를 양식화한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프린트 직물과 레이스를 비롯한 얇고 부드러운 직물을 다량 사용하였고 색조는 pale color이다. 아르누보 패션은 공통적으로 C자형과 S자형의 유기적인 곡선과 자연스러운 드레이

퍼리 기초로 하며, 성숙한 여인의 세련된 엘레강스를 일관되게 호화롭고 환상적인 과잉장식 양식으로 표현한데 특색이 있다.

아르누보 시대의 패션에서는 당시의 과잉장식 모드에 따라 장식과 디테일이라는 이차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장식성을 부각시키는 디테일 기법에 따라 주름, 자수, 부착에 의한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주름에 의한 장식은 표면을 접거나 오그려 생기는 효과로써 고유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자수에 의한 장식은 실로 표면을 통과시켜 도통하게 표현하며, 부착에 의한 장식은 표면에 다른 무언가를 붙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 기법이 나타난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름은 셔링, 러플, 프릴, 플라운스에 의한 파상의 곡선적인 입체감과 플리츠, 턱에 의한 규칙적이고 직선적인 선을 신체의 곡선에 맞게 다시 입체감으로 나타냈다.

둘째, 자수는 입체감을 주는 스티치에 의해 다양한 패턴의 전개와 다양한 색채 효과로 나타났다.

셋째, 부착에 의한 방법은 아플리케의 독립된 모티프 형, 비즈, 시퀸의 광택효과, 모피, 깃털 풍부한 질감과 움직임에 의한 유동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법은 아르누보 시대의 장식 디테일의 과잉장식 양식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리드미컬한 입체형, 세밀한 요철형, 표면감촉형, 깊이 있는 볼륨형 등의 표현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테일의 표현 양상은 주름, 자수, 부착 등의 장식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표현하여, 한 가지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감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장식 디테일 중 비즈, 스톤 등의 부착에 의한 방법으로 드레스 작품 1점을 기획하였다. 아르누보의 과잉장식 양식을 잘 나타낸 대표적 디자이너인 에르테(Erté)의 작품 중, 자주색 스톤을 모티프로 한 “Amethyst”를 선정하여 그 이미지를 나타낸 “Neo-Amethyst”를 테마로 1점의 드레스를 디자인 하고 실제로 제작하였다. “Neo-Amethyst”는 우아하

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허리와 힘을 피트되게 디자인한 S자형 실루엣의 자주색 더블패널 이브닝드레스이다. 여기에 장식적인 요소로 비즈와 스톤을 사용하여 입체적이고 뚜렷한 명암효과를 디자인 포인트로 나타냈다.

드레스 디자인에 있어 아르누보 이미지의 도입은, 복고풍의 재현뿐만 아니라 드레스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보다 독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성 있는 드레스를 제작 할 수 있으며, 21세기 전후의 다양화 된 패션 흐름의 현대 의상에 도입됨으로써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대 패션의 새로운 예술로써 자리잡아갈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조규화(2004), *패션미학*, 수학사, p.31.
- 2) 2000/1 F/W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2001 S/S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2001/2 F/W의 돌체&가바나(D&G),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 2002 S/S 의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2003/4 S/S의 임마누엘 움가로(Emanuel Ungaro), 2005/6 S/S의 베르사체(Versace) 등
- 3) S. T. 마드센 (1967), *알누보*, 東京 : 美術公論社.
- 4) The Books of Kells: 아일랜드에서 8세기까지 제작된 켈트인의 복음서.
- 5) 조규화, op.cit., p.104.
- 6) S. T. 마드센 (1967), *알 누보*, 東京 : 美術公論社. pp.22-28
- 7) 장순찬(1985), “Art Nouveau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0.
- 8) Gerard Durozoi(1992), *Toulouse-Lautrec*, London: Studio Editions.
- 9) 南 靜(1990), *パリ モードの200年*, 東京: 文化出版局, p.88.
- 10) Ibid., p.88.
- 11) Madge Garland and Anderson Black(1975), *A History of Fashion*, New York: Morrow,



- p.219.
- 12) 南 靜(1975), *パリ モードの200年*, 東京: 文化出版局, p.82.
  - 13) Richard Martin & Harold Koda(1995), *Haute couture*, New York : Metropolitan Museum of Art, p.49.
  - 14) 미국인 화가 찰스 다나 깁슨(Charles Dana Gibson: 1863~1945)이 즐겨 그린 의상 스타일.
  - 15) 南 靜(1975), *パリ モードの200年*, 東京: 文化出版局, p.95.
  - 16) Cecil Saint-Laurent(1988), *Histoire Imprevue De Dessous Feminins*, Paris: Herscher , p.23.
  - 17) Ibid., p.95.
  - 18) 조규화, op.cit., p.106.
  - 19) Kim, Mi-Young · Cho, Kyu-Hwa(2003). "A Study on Art Nouveau Style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7, No. 6, pp.1-9.
  - 20) Romain de Tirtoff(1985), *エルテ : The Complete Graphic Works*, 東京: 講談社, p.49.
  - 21) 장순찬(1985), "Art Nouveau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高階秀爾(1973), *世紀末藝術*, 東京: 紀伊國屋書店, p.120.
  - 23) "Fashion History", (2000.03.12), *삼성디자인넷* 2007.09.12,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4) Lydia Kamitsis (1996), *Vionnet*, London: Thames and Hudson, p.14.
  - 25) Charlotte Mankey Calasibetta(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Seco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Books, p.237.
  - 26) Georges Lepape, George Barbier,(1979), *French Fashion Plates in Full Color from the Gazette du Bon Ton (1912-1925)*, New York: Dover.
  - 27) 服裝文化協會(1976), *服裝大百科事典-上卷*. 東京 : 文化出版局, p.219
  - 28) Sharon Lee Tate(1984), *Inside Fashion Design-Second Edition*, New York: Arper & Row, p.147.
  - 29) 服裝文化協會(1976), *服裝大百科事典-上卷*. 東京 : 文化出版局, p.630.
  - 30) R. Tunrer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els Scribners Sons, p. 321
  - 31) Helen L, Brockman(1965),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John Wiley & Sons. Inc, p.294.
  - 32) 南 靜(1990), *パリ モードの200年*, 東京: 文化出版局, p.94.
  - 33) Romain de Tirtoff; Selected by S. Blum (1976), *Designs by Erté: Fashion Drawings and Illustrations from "Harper's Bazar"*, New York : Dover, p.21.
  - 34) 에르테(Erté)는 사실 연대가 좀 뒤이지만 그의 작품 경향은 훨씬 후 까지도 가장 유미적이고 쾌락적이며 감각적인 아르누보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 35) J. Anderson BlackMadge Garland(1997), *세계 패션사*, 윤길순(역), 자작아카데미, p.24.
  - 36) Claire Wilcox & Valerie Mendes(1991), *Modern Fashion in Detail*,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p.55.
  - 37) Constance Howard (1981), *Twentieth-century embroidery in Great Britain*, London : Batsford, p.34.
- 
- 접수일(2007년 11 월 13일)  
 수정일(1차 : 2007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2008년 1월 7일)